

協業經營에 對한 山主態도와 社會經濟的變數*1

趙 應 赫**2

Socio-Economic Variables and Attitudes of Forest Owners toward Cooperative Management*1 Eung Hyouk Cho**2

Total 183 private forest owners in Chungnam-Do were surveyed in order to analyze the attitudes toward cooperative forest management an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f the attitudes with such socio-economic variables as owners' socio-economic status(SES), age and educational level.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nly 17.5 percent of the owners regards the cooperative management as a desirable alternative for the management of private forests.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ir attitudes is recognized only among the classes of the educational level.

2. About one-third of the owners wishes to participate to a cooperative, if established. The owners' intention of participating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S. E. S. and educational level,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at of age variable,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 classes of all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the 0.01 or 0.05 levels.

3. More than half of the owners desires to have limited cooperatives, in which the members themselves manage their forest land with some management aspects being handled by the cooperative such as procurement of seedlings, protection measures, and marketing. The difference of responses among the classes of educational level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4. The owners, who agree with the idea of voluntary membership in the cooperative, are about 45 percent of the total.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only among the classes of the S. E. S. variable.

5. Nearly 60 percent of the owners wants to have self-help cooperative organizations. Significant difference of responses is recognized only among the classes of the age variable.

1980年 10월에 183名の 山主로 부터 蒐集한 調査資料에 따라, 社會經濟的變數(S. E. S., 年令, 教育水準)의 階層別百分率에 의하여 私有林經營의 協業化에 對한 山主態도를 分析하고, 各變數의 階層性을 究明하기 위하여 變數階層間的 有意差를 카이自乘法으로 檢定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여러 가지 私有林經營方案중에서, 協業經營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山主의 比率은 17.5%에 지나지 않았으며, 各變數의 카이自乘値는 教育水準變數만이 1%水準에서 有意的이었다.

2. 일단, 私有林協業體가 設立되면, 61.8%의 山主가 이에 參與할 意思가 있는 것으로 反應하였으며, S. E. S. 와 教育水準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年令이 낮은 階層일수록 參與意識이 높다. 階層間的 有意差는 모든 變數에서 나타났다.

3. 세 가지 形態의 協業體 중에서, 57.4%의 山主가 制限協業體를 바라고 있으며, 變數의 階層性은 教育水準에서만 나타났다.

4. 協業體構成員에 대하여는 山主의 希圖에 따라 自律的으로 加入시키야 한다는 山主가 44.8%이었다. 自律的加入을 바라는 山主는 S. E. S., 年令 및 教育水準이 낮아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階層性은 S. E. S. 變數에서만 나타났다.

*1. Received for publication on Jun. 29 1981

*2. 忠南大學校 農科大學 College of Agricul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5. 約60%의 山主가 協業體運營方式으로서, 自律的協業體를 바라고 있으며, 階層間的 有意差는 年令變數에서만 나타났다.

6. 지금까지의 分析에 依하면, 세가지 要因이 모두 山主態도에 影響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重要的 要因은 教育水準變數로 나타났다. 그러나, 山主態도와 關聯되는 要因은 傳達媒介變數, 社會參與變數등 여러가지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綜合的 究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緒 論

우리나라 私有林이 持續的으로 發展하려면, 우선 그 自體가 投資對象으로 될 수 있는 여러가지 與件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政府는 私有林에 대하여 막대한 公共投資를 實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現實的私有林의 ha當 立木蓄積은 12.4m³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生産性은 아직도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私有林은 資本의 投資効率을 낮추고 自體의 發展을 阻害하는 여러가지 問題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根本的인 問題는 所有規模의 零細性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私有林은 正常的林業經營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團地化하여 集中的인 林業投資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零細私有林의 團地化方法에는 國有化, 公企業化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⁴ 政府에서는 현재 技術 및 資金의 差等支援制 등을 통하여 私有林經營의 協業化를 장려하고 있다. 원래, 協業的林業經營이란 多數의 山林所有者가 한가지 이상의 共同目標을 달성하고자, 어떤 生産過程 또는 作業過程을 서로 協力하여 經營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하여 林業機械化, 永久勞務者의 雇傭 등 大規模林業經營의 有利性을 確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私有林協業體가 실제로 成立하여 發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協業體構成員(山主)의 參與意職이 뚜렷하여야 한다. 따라서, 本研究는 私有林協業體에 대한 山主의 態度를 究明하는 동시에 山主의 社會經濟的地位, 年令, 教育水準을 비롯한 社會經濟的變數가 이러한 山主態度에 어떻게 關聯되는가를 分析하는데 目的을 두고 實施하였다.

資料 및 方法

1. 研究資料

本研究에 이용된 資料는 忠南 大德郡 및 扶餘郡에 所在하는 90名의 一般山主와 山林廳의 篤林家一覽(1977)에 수록되어있는 篤林家중에서,⁵ 93名의 篤林家を 系統抽出法으로 選定하여 蒐集하였다. 이 調査는

1980年 10月중에 實施되었으며, 一般山主에 대하여는 調査員이 對象山主를 訪問하여 미리 作成된 調査票에 따라 聽取調査를 實施하였고, 篤林家에 대하여는 調査票를 郵送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신이 記錄한 후 反送토록 하였다.

2. 研究方法

가. 變數의 選定과 階層化

協業體에 대한 山主의 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經濟的 要因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社會經濟的地位(socio-economic status=S. E. S.), 年令 및 教育水準의 3個要因을 變數로 選定하였다. 그 理由는, 우리나라 農家에 대한 여러 研究에서 이러한 要因이 農業技術受容이나 農家의 態度에 미치는 影響이 큰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6,8} 이러한 要因은 쉽게 連續的인 變數로 轉換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各變數는 다음과 같이 階層化하였다.

(1) 社會經濟的地位變數

本研究에서는 山主의 物的所有物 17項目에 대한 調査를 실시하여 S. E. S. 를 測定하고자 하였으나, 全體山主에 대한 所有比率이 15~85%範圍 밖에 있는 7個項目을 除去함으로써,⁶ 나머지 10個項目을 基準하여 S. E. S. 를 測定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10個項目은 脫穀機, 耕耘機, 揚水機, 柵子, 鋤, 현대식 장롱, 사저기, 動力噴霧器, 재봉틀, 전기밥솥 등이며, 各項目別로 所有山主에 1點, 非所有山主에 0點을 配點하였다. 따라서, 山主의 S. E. S. 評點은 0~10點의 範圍內에 分布하게 되며, 이러한 評點에 의하여 調査對象山主를 0~3點, 4~6點, 7~10點의 세 가지로 階層化하였다.

위의 各項目이 S. E. S. 尺度에 有意的으로 寄與하는가를 카이自乘法으로 檢定한 結果 모든 項目이 1%水準에서 有意的이었다. 한편, 調査項目의 尺度構成可能成을 檢證하기 위하여 再生係數(coefficient of reproducibility)를 算出한 結果, 0.89로 나타났음으로 尺度構成이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⁹

(2) 年令變數

山主의 年令을 調査하여 49才以下, 50~59才, 60

才以上の 세가지 階層으로 區分하였다.

Tab.1. Number of owners surveyed by socio-economic variable

S. E. S.		Age		Educational level	
Score	No. of owner	Score	No. of owner	Score	No. of owner
0 - 3	37	-49	72	0 - 6	73
4 - 6	83	50 - 59	60	7 - 12	69
7 - 10	63	60 -	51	13 -	41
Total	183	-	183	-	183

(3) 教育水準變數

學校에서 正規教育을 받은 年數를 기준하여 6年以下, 7~12年, 13年以上の 세가지로 階層化하였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變數의 階層別 調查山主 分布는 表1과 같다.

나. 分析方法

社會經濟的變數의 各階層別 百分率을 算出하여 協業體에 대한 山主態度를 分析하는 한편, 이러한 山主態度가 各變數의 階層間에 어느정도 差異가 있는가를 究明하기 위하여 카이自乘法에 의한 有意差를

검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協業體에 대한 山主態度는 ① 私有林經營의 協業化에 대한 態度, ② 協業體 參與意識, ③ 協業體形態, ④ 協業體 構成員의 資格, ⑤ 協業體運營方式 등에 대한 態度를 뜻한다.

結果 및 考察

1. 私有林經營의 協業化

私有林經營의 協業化에 대한 山主의 反應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가지의 私有林經營方法을 提示한 후 가장 바람직한 方法을 說問한 結果는 表2와 같다.

Tab.2.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management of private porest(%)

Item	Total	S. E. S.			Age			Educational		
		0 - 3	4 - 6	7 - 10	-49	50 - 59	60 -	- 6	7 - 12	13 -
By individual owner	61.2	64.9	65.1	54.0	66.7	58.3	56.9	69.9	62.3	43.9
By public agency	12.6	10.8	12.0	14.3	5.6	16.7	17.6	12.3	15.9	7.3
Through cooperatives	17.5	13.5	15.7	22.2	22.2	18.3	9.8	6.8	17.4	36.6
Don't know	8.7	10.8	7.2	9.5	5.5	6.7	15.7	11.0	4.4	12.2
Chi-square(df = 6)		2.82			11.85			20.20**		

** : $p < 0.01$

表2에서 보면, 山主 각자가 자신의 山林을 獨立의 經營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山主가 全體의 61.2%나 되며, 國家 또는 公共機關이 私有林經營을 代執行해야 한다는 山主가 12.6%, 私有林協業體에 의한 共同經營이 바람직하다는 山主의 比率은 17.5%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山主는 協業體에 대한 認識이 매우 부족하거나 協業化를 기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이들을 協業體로 誘導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指導活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私有林協業化에 대한 山主態度는 S. E. S. 가 높고, 연령이 낮은 階層일수록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有意差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教育水準階層間에는 1%水準에서 有意差가 나타났으며,

教育水準이 높아질수록 個別經營이 바람직하다는 山主의 比率이 낮아지는 반면에, 協業經營이 바람직하다는 山主의 比率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2. 協業體參與意識

私有林協業體가 設立될 경우, 이에 參與할 意思가 있

는지를 알아 본 結果, 表3에서와 같이 61.8%가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으며, 協業體에 參與하려는 理由는 주로 그 組織을 통하여 政府의 支援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各變數階層間의 카이自乘을 계산하였더니, 모든 變

Tab. 3. Owners' opinion on joining cooperatives as a member (%)

Item	Total 40.5	S. E. S.			Age			Educational		
		0 - 3	4 - 6	7 - 10	-49	50-59	60-	- 6	7 - 12	13 -
Yes	40.5	66.3	66.7	75.0	58.3	47.1	58.9	59.4	70.7	61.8
No	40.5	28.9	30.1	22.2	33.3	41.2	27.4	37.7	26.8	31.1
Don't know	19.0	4.8	3.2	2.8	8.4	11.7	13.7	2.9	2.5	7.1
Chi-square(df = 4)		13.63**			11.09*			9.68*		

* : p<0.05, ** : p<0.01

數가 有意의이었으며, 특히 S. E. S. 變數가 高度의 有意性을 보여 주었다. 즉, 山主의 協業體參與 意識은 S. E. S. 와 教育水準이 낮고 年令이 높은 階層일 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山主의 年令이 많을수록 協業體參與意識이 낮아지는 理由는 이들의 保守의 性格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3. 協業體形態

協業體의 形態는 모든 生産資本의 所有權과 經營

權을 協業體가 保有하는 所有協業體(ownership cooperatives), 所有權은 構成員 各자가 保有하고 經營權만을 協業體가 保有하는 完全協業體(full cooperatives), 그리고 所有權과 經營權을 모두 構成員 各자가 保有하되, 苗木調達, 保護事業, 生産資材購入, 林産物販賣 등 特定事業만을 共同으로 실시하는 制限協業體(limited cooperative, 또 나눌 수 있다.)

Tab. 4. The type of cooperative organization (%)

Item	Total	S. E. S.			Age			Educational		
		0 - 3	4 - 6	7 - 10	-49	50-59	60-	- 6	7 - 12	13 -
Ownership cooperative	1.6	0.0	2.4	1.6	2.8	0.0	2.0	4.1	0.0	0.0
Full cooperative	17.5	21.6	16.9	15.9	20.8	11.7	19.6	17.8	20.3	12.2
Limited cooperative	57.4	46.0	60.2	60.3	62.5	55.0	52.9	49.3	53.6	78.1
Don't know	23.5	32.4	20.5	22.2	13.9	33.3	25.5	28.8	26.1	9.7
Chi-square(df = 6)		4.04			9.28			13.88*		

* : p<0.05

이러한 세가지 形態중에서, 우리나라 山主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協業體의 형태는 表4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制限協業體로 나타났으며(57.4%),

그 다음이 完全協業體(17.5%)와 所有協業體(1.6%)이다. 이러한 結果를 보아서, 우리나라 山主들의 대부분은 自己山林의 所有權은 물론 經營權까지도 내

농기를 대단히 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林業經營”보다는 “所有自體” 만으로 만족하는 傾向이 있다고 하겠다.

協業體形態에 대한 變數階層間의 有意差는 教育水準變數간이 5%水準에서 有意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制限協業體를 희망하는 山主의 比率은 教育水準과 正比例하여 높아지고 있다.

4. 協業體構成員의 資格

協業體構成員은 表5에서와 같이, 山主의 希望에 따라 自律的으로 加入시키야 한다는 反應이 44.8%로 가장 많고, 현재의 山林契와 같이 設立區域內의 모든 家口主를 의무적으로 加入시키야 한다는 山主는 18%에 지나지 않는다.

Tab. 5.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in cooperatives(%)

Item	Total	S. E. S.			Age			Educational		
		0 - 3	4 - 6	7 - 10	- 49	50 - 59	60 -	- 6	7 - 12	13 -
Voluntary owners only	44.8	70.3	44.6	30.2	48.6	43.3	41.2	48.0	43.5	41.5
All owners in area	29.0	18.9	27.7	36.5	25.0	30.0	33.3	26.0	26.1	39.0
All head of household	18.0	10.8	18.1	22.2	22.2	15.0	15.7	21.9	17.4	12.2
Don't know	8.2	0.0	9.6	11.1	4.2	11.7	9.8	4.1	13.0	7.3
		16.60*			4.80			7.05		

*: p<0.05

이를 社會經濟的 變數와 관련시켜 보면, S.E.S., 年令 및 教育水準이 낮아질수록 希望山主만을 構成員으로 加入시키자는 應答比率이 높아지는 반면에, 設立區域內의 모든 山主를 加入시키야 한다는 應答比率이 낮아지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카이自乘을 算出한 바에 의하면, 年令 및 教育水準變數는 階層性을 보이지 않았으며, S.E.S. 階層間에서만 5%水準의 有意差가 나타났다.

5. 協業體運營方法

協業體의 運營方法을 官主導的인 것과 自律的인 것으로 區分하여 바람직한 方法을 알아 본 結果, 表6에서와 같이, 構成員의 自律的運營이 바람직하다는 山主가 約60%를 차지하는 反面에, 官主導下에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山主의 比率은 22%를 넘지 못하고 있다.

Tab. 6.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cooperatives(%)

Item	Total	S. E. S.			Age			Educational		
		0 - 3	4 - 6	7 - 10	- 49	50 - 59	60 -	- 6	7 - 12	13 -
Official organization	21.8	32.4	21.7	15.9	19.5	28.3	17.7	26.0	21.7	14.6
Self-help organization	59.6	48.7	60.2	65.1	70.8	51.7	52.9	53.4	58.0	73.2
Don't know	18.6	18.9	18.1	19.0	9.7	20.0	29.4	20.6	20.3	12.2
Chi-square(df = 4)		4.01			10.61*			4.49		

*: p<0.05

이를 各變數階層別로 살펴 보면, S.E.S. 와 教育水準이 높은 階層일수록 自律的 運營을 원하는 山主

가 많은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有意差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年令階層만이 5%水準에서 有意的이었다

結 論

私有林經營의 協業化에 대한 山主態度와 이에 대한 山主의 社會經濟的變數, 즉 S. E. S., 年令 및 教育水準과의 關聯性을 究明하기 위하여, 90名의 一般山主와 93名의 篤林家를 대상으로 調査한 결과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이 때, 協業化에 대한 山主態度는 各變數의 階層別 百分率에 의하여 分析하였으며, 變數階層間의 有意差를 카이自乘法으로 檢定하였다.

1. 調査對象山主의 61.2%가 各自의 獨立的經營을 원하고 있으며, 協業經營이 바람직하다는 山主의 比率은 17.5%에 지나지 않는다. 私有林協業化에 대한 山主態度는 S. E. S. 와 教育水準이 높고, 年令이 낮은 階層일수록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내는 傾向이 있으나, 變數階層間의 有意差는 教育水準에서만 나타났다.

2. 私有林協業體가 設立될 경우, 61.8%의 山主가 이에 參與할 意思가 있는것으로 反應하였으며, S. E. S. 와 教育水準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年令이 낮은 階層일수록 參與意識이 높다. 階層間의 有意差는 모든 變數에서 나타났다며, 특히 S. E. S. 變數에서 매우 有意的이었다.

3. 세가지의 協業體形態, 즉 所有協業體, 完全協業體, 制限協業體중에서, 調査對象山主의 57.4%가 制限協業體를 바라고 있으며, 變數階層間의 有意差는 教育水準에서만 나타났다.

4. 協業體構成員은 山主의 希望에 따라 自律的으로 加入시켜야 한다는 反應이 44.8%로 가장 많으며, 이러한 應答比率은 S. E. S. 年令 및 教育水準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變數階層間의 有意差는 S. E. S. 階層에서만 나타났다.

5. 約60%의 山主가 協業體運營方式으로서 自律的協業體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S. E. S. 와

教育水準이 높은 階層일수록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有意差는 보이지 않았으며, 年令變數만이 5%水準에서 有意的이었다.

6. 지금까지 協業經營에 대한 山主態度를 分析하면서, 여러가지 要因이 이에 關聯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分析에 의하면, 教育水準變數가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山主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이 밖에도 傳達媒介變數, 社會參與變數, 社會心理變數 등 많은 要因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에 對한 綜合的究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1. 崔敏浩, 1974, 벼栽培技術受容과 벼收量에 影響을 주는 諸要因의 分析, 韓國農業教育學會誌 6(1): 1-32
2. Korean-German Forest Management Project, 1978,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Forest Cooperative Management, Vol. 1, PP.82
3. 李萬甲外, 1980, "社會調查方法論"PP369, 進明出版社
4. 朴泰植外, 1979, 大團地造林計劃과 經營管理의 合理化에 關한 研究, 1979年度 林政研究報告書, 5-160, 林政研究會
5. 산림청, 1977, "독립가인람"PP342
6. 王仁權, 1963, 農家의 社會經濟的地位와 勸獎技術受容, 農業經濟研究 第六輯: 14-26
7. 王仁權, 1967, 農業經營主의 勸獎農業事項에 대한 知識과 社會經濟的變數, 農業經濟研究 第九輯: 77-88
8. 王仁權, 1971, 勸獎農業技術受容과 選擇의 關聯變數, 서울大論文集 人文社會科學, 185-232